

# 내 마음을 이긴 자가 진정한 '이긴자'

## 영생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곧 사망권세를 이기는 마음

###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이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자는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마음이고 늘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봐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상에 어떤 말이 있나면 "목이 곧고 완악한 인생들이 쟁과리를 치고 춤을 추고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은 화인 맞은 인생." 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눈물이 메마른 정도면 그 마음이 화인 맞은 인생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닌 완악한 마음이고 눈물이 메마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눈물이 메마른 그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온유한 신이요, 하나님의 신은 자비로운 신이요, 하나님의 신은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신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그래야 생수가 연결되고 은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 학구적인 자세를 가져야

그런고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충성을 할까? 오직 이런 마음밖에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긴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의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시간 시간이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로 죄를 짓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고 해결해 주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죄를 짓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한 고로 눈물이 나왔던 것이다.

그런고로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정에 파묻혀서 살아야 은혜가 연결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욕심에 찬 마음,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와 자기의 정도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이끌어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발전하려면 학구적인 자세를 가져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구적인 자세라는 것은 늘 말하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바로 그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이 될 아는 걸로 꼭 차 가지고는 학구적인 자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야 그 안에 될 담을 수



구세주 조희성님

가 있고 이제 뭘 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 뭐가 꼭 차 있으면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현재 비워 있는지? 그 마음이 비어 있지 않고 빻이 꼭 차게 마음에 들어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가지고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그 마음을 비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꼭 차게 들어 있으면 생수를 부어 봐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생과 상관없이 아야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

혜를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그런고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몸이요, 그런고로 나를 이기는 마음이요, 마귀를 이기는 마음이요, 사망권세를 이기는 마음이고 영생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사망권세를 이기는 마음이요, 이제 이런 저런 잡념의 마음을 이제 완전히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곧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는 마음은 항상 자나 깨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관심의 음란죄요,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요,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을 생각하는 음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면 나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게 하나님한테 저서 죽어 없어지는 고로 그런 것입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 생각뿐 인고로 가족을 봐도 하나님 생각이요, 다른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 생각이요, 길을 걸어도 하나님 생각이요, 제단에 앉아서 예배를 봐도 하나님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이기는 마음인 것

입니다.

###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

나를 이긴다니까 뭐 씨름을 해 가지고 자빠뜨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바로 나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려야 나올 수 없는. 그게 완전히 되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긴자 하나님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의식하는 마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그건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새끼지, 마귀새끼가 뭐 뿔이 돋치고 흉측하게 생긴 것이 마귀새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새끼는 항상 자기 유익만 구하고 이해타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새끼라는 것은 나라는 의식의 주체 영에 의해서 주장함을 받는, 이쁨을 받는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에 종노릇하는 자가 마귀새끼인 것입니다. 이긴자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마귀가 되는 나를 이겼기 때문에 이긴자가 된 것이지 기운이 빠져서 상대방을 넘어트리는 것이 이긴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이긴 자가 이긴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고 항상 자신의 마음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자가 곧 이긴자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1992년 5월 5일 주님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 연재에 들어가며 -

신약성경이 생기기 이레로 2천 년 동안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고 유다에게는 치리권이 갔다고 역대상을 근거로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실질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무수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2천 년 동안 쌓은 견고한 바벨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바벨탑과 같은 우상을 여지없이 부숴버릴 존재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참성경>을 연재하여 수천 년 동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 전승된 성경해석을 바로 잡고자 한다.

###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협박의 하나님(God of intimidation)'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무지한 산물

앞성경 특히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가 성경 기자에 의해 왜곡된 채 그려져 있는 것을 조금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맘에 안 들면 선민이건 이방인이건 쳐죽이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기록된 원인이 부분적인 은혜를 받은 죄인의 입장에서 마귀식으로 기록한 탓이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올바르게 하나

님의 성품을 기록한 성경 말씀은 지극히 적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도,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반대로 마귀의 말은 짝이 없고 아치에 맞지 않는다."는 구절의 말씀은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키(Key)와 같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짝이 없는 마귀 말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준의 종교가 지금까지의 유태종교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 그레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말한 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한다(고전13:10)"고 했는데, 지금 이 승리제단에서 그 바울의 예언이 그대로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에덴동산의 회복까지는 일곱번째 인을 때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연재되는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를 계속해서 구독하게 되면, 왜 단지파의 조상 단에게 야곱이 장자상속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당



참성경은 에덴동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알게 한다

위성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경전동지 할만큼 소경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영적과일)이 나가 죽이는 영)가 되는 마귀 영한테 점령당함으로써 바로 그 순간 에덴동산은 무너지게 되었었던 것이다.

이렇게 무너졌던 에덴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전략이 성경이라는 책에 묵시(默示)되

어 있는 것이다. 성경 속에 숫자와 관련된 묵시의 비밀 가운데 7수(七數)란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한 숫자이다. 하늘과 땅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신천지(新天地) 회복을 뜻하는 숫자가 바로 7수자이다.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할 주인공은 반드시 7수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게 되어 있다.

역대상 2장과 창세기 49절의 말씀의 짝을 맞춰보면 ①루우벤, ②시므온, ③레위, ④유다까지는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

운데 먼저 난 자부터 순서대로 열거하였다. 그런데 야곱의 다섯째 아들 단이 그 다음에 기록되지 못하고 다섯번째부터는 무작위로 배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은 역대상 2장 2절이나 창세기 49장 16절의 구절에서 둘 다 똑같이 일곱번째 자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밀코드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인봉한 것이며, 장차 묵시록에 예언된 일곱번째 천사가 출현할 때에 풀어서 만민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곱번째 천사가 일곱번째 인을 때는 자요, 일곱번째 나팔을 부는 자이다. 곧 안식일의 주인공이요, 메시아인 것이다. 따라서 단지파 가운데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여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 세상 왕권을 쥔 유다 족속이 전면에 등장하지만 천국회복의 마지막 주인공은 단지파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사십주야를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할 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유독 단지파에 속한 오홀리암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한다. 이는 장차 단지파 자손에서 천국 성전을 건설할 자가 나오게 된다고 암시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

리어 이름인 오홀리암에게 성막 건축을 주께서 맡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단지파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예비하였으며 요나단의 자손 대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는 모세의 대변자요 조력자요 아론에게 속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역할을 요나단에게로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오래 전에 야곱이 열두 아들을 모아놓고 장래 일을 예언할 때, 유일하게 단에게 심판 권세를 가진 자라고 축복함으로써 단지파 민족이 이끄는 나라가 만국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임을 천명하였다.

기존 성경(신구약 66권)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유대왕국을 건설한 레아(야곱의 첩)의 자식들의 후손들(특히 유다와 레위 자손)에 의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들의 인적사항이 고의로 폄하되거나 삭제당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참성경>에서는 유다 중심으로 재구성된 기존 성경의 틀을 벗어나, 라헬(야곱의 본처)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바리새(Pharisee, 성서)를 신봉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양 진영과 코란(Koran)을 신봉하는 아랍 진영 간의 종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다.\* 안젤라